

북스

어린이 책꽂이



▲빨간 내복을 입은 공룡=취라기, 백악기를 거쳐 많은 공룡들이 사라지기도 하고 진화하기도 하다가 끝내 멸종했다. 공룡이 언제, 어떻게 진화했으며, 초식 공룡은 어떻게 몸을 지켰는지, 각 공룡들의 특징은 무엇인지 등 총 18종의 공룡에 대한 이야기가 재미있는 동시와 아름다운 그림으로 펼쳐진다. <세계집·1만800원>



▲멋진 열두살=탄광촌에서 엄마, 아빠와 함께 살아가는 평범한 소녀 엘리. 열두 살인 되는 엘리는 단짝 친구가 생기고, 첫 입맞춤을 경험한다. 작가 신시아 라이란트가 십대가 되기 직전 사춘기의 문턱에서 자의식이 풍부해지는 열한 살의 혼란스러움을 간결하고 절제된 문장으로 그렸다. <문학과학사·8천원>



▲사진작가 최민식의 이야기=너를 찍고 싶었어=50여 년이 넘는 세월을 아름다운 모델 대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찍었던 사진작가 최민식의 이야기를 담은 그림책이다. 사진을 통해 세상에 온기를 불어넣었던 사진작가 최민식의 일생을 통해 인간에 대한 사랑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게 한다. <웅진주니어·9천500원>



▲전교 1등 어린이 자기주도 공부법=2010년부터 입학사정관제가 118개 대학으로 확대되면서 자기주도학습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공신원정대가 탐험에서 찾아낸 황금고파서 속의 특별한 공부법을 소개한다. 시간 관리법과 계획 세우기, 이해력·사고력·창의력을 도와주는 독서법 등을 담았다. <뜨인돌어린이·9천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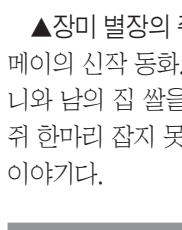
▲위인들이 자신의 재능을 발견한 결정적 순간=위인들은 어떻게 재능을 발견하고 발전시켰을까? 안철수, 백남준, 미야자키 히야오, 오프라 윈프리, 김연아 등의 이야기를 통해 재능은 저절로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노력하고 관찰하고 도전할 때 발휘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글담어린이·9천800원>



▲겨레 전통도감·탈춤=우리 겨레가 살아온 모습을 세밀화와 전통화첩으로 그려 낸 '겨레 전통도감' 시리즈 다섯 번째 권. 안동 하회별신굿 탈놀이부터 환경남도 북청사자놀음까지 한반도를 아우르는 탈춤 11가지가 익살스러운 그림과 구수한 대사와 함께 소개했다. <보리·3만5천원>



▲뚝 세는 집=세계의 화장실 이야기=시간과 공간을 넘나드는 화장실 이야기. 로마 시대, 중세 시대, 현대까지,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 등 여러 대륙에서, 지상뿐 아니라 잠수함, 비행선 안까지 사람들이 어떤 화장실에서 어떻게 대소변을 봤는지, 배변물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알아본다. <해솔·1만2천원>



▲잠미 별장의 쥐=배고픈 여우 콘라트=쓴 중국 동화작가 왕이 메이의 신작 동화. 홀로 도시 밖 작은 별장에서 살고 있는 잠미 할머니와 남의 집 쌀을 몰래 훔쳐 먹고 살아온 떠돌이 쥐 쌀들이 그리고 쥐 한마리 잡지 못하는 늙은 고양이 똥이가 만들어가는 가슴 뭉클한 이야기다. <하늘파란상상·9천500원>

익명성·자본주의가 타인에게 가하는 폭력

컨설턴트

임성순 지음



“사람들이 흔히 하는 착각은 구조조정이 보다 합리적인 새로운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전문가로서 말하면 실상은 이렇다. 진정한 '구조'는 결코 조정되지 않는다. 사라지는 건 늘 그 '구조'의 구성원들뿐이다.”(23쪽 '구조조정' 중) 세계일보가 주관한 1억원 고료의 제6회 세계문학상 수상작으로 올해 1월 선정된 임성순(34)씨의 장편소설 '컨설턴트'가 출간됐다.

1인칭 시점의 회고 형식으로 진행되는 소설은 현대인의 익명성과 자본주의가 타인에게 가하는 폭력을 이야기한다. 이 소설은 심사위원들로부터 완벽한 살인을 하기 위해 '킬링 시나리오'를 대신 써주는 작가를 주인공으로 등장시켜 자살을 가장한 타살을 조장

하는 사회를 비판적으로 성찰했다는 평을 들었다. 주인공 '나'는 킬러다. 회사의 의뢰를 받아 고객에게 우연처럼 보이는 불행을 계획하여 반복되는 일상에서 작은 불행들이 누적되는 것을 통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킬러. 이것은 결코 타살처럼 보이지 않기에 누구도 불행해지는 사람 따위는 없다. 이 때문에 '나'는 죽음을 제공하는 것도 일종의 서비스업이며, 이 일은 컨설팅을 하는 전문직이라고 생각한다. 그가 두려워하는 단 한 가지의 회사이다. 언제나 선택을 조종하는 회사인 '나'의 옛 연인의 죽음을 계획하고 완벽하게 시켰다. 하지만 그는 이 사건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고, 이 모든 것이 회사의 음모라고 생각한다.

소설에는 다양한 상징이 등장한다. 회사는 관료주의의 상징이며, 자본주의는 구체성이 제거된 상징으로 표상된다. 곳곳에 등장하는 수상한 죽음들은 아직도 우리나라가 투명하지도, 상식적이지도, 합리하지도 않음을 뜻한다. 시니컬한 어머니는 부조리한 현실을 비웃고 있으며, 작품에 사용된 추리적 기법은 사회적 성찰을 위한 장치로 작용한다. 국문과를 졸업한 임씨는 재학 시절 광경택 감독의 영화 '웹피어'(2002년)과 안권태 감독의 영화

'우리 형'(2004년) 연출부 생활을 하기도 했다.

임씨는 작품 속에 등장하는 완벽한 죽음의 시나리오를 만들기 위해 법의학 관련 서적을 탐독하고, 신문의 부고란을 통해 아이디어를 얻었다. 주인공이 쓰는 킬링 시나리오가 액자소설로 등장하면서 커다란 서사 속에서 잘 짜인 또 한 편의 추리소설을 읽는 듯한 재미를 선사한다.

임씨는 “직접적인 살인을 하지는 않지만 사실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는 행동들 때문에 어딘가 주변부에서 죽음을 당하거나 기어기 사달린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며 “우리 사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사회 구조에서 ‘어쩔 수 없다’거나 ‘아무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건지 묻고 싶었다”고 전했다.

문학 애호가였던 어머니의 영향으로 글을 쓰기 시작한 임씨는 몇 해 전 어머니를 잃고 실서증까지 앓았지만 이를 극복하고 첫 장편소설인 '컨설턴트'를 완성했고, 이 작품으로 세계문학상 수상 영예를 얻었다.

이번 발표한 '컨설턴트'는 소위 '회사'를 주제로 한 3부작 중 1부이며, 임씨는 현재 2부 '문근영은 위험해'와 3부 '전리'를 집필 중에 있다. <은행나무·1만1천5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13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 6회 세계문학상 수상작 '컨설턴트' 출간기념회에서 임성순 작가가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사 큰 발자취 남긴 다섯 영웅

시대의 디자이너들 ...

강문식 외 지음



역사와 인물의 살아있는 이야기를 통해 한국사를 재조명한다는 취지에서 기획된 '사람으로 읽는 한국사' 시리즈의 네 번째 권 '시대의 디자이너들-우리의 역사를 설계한 5명의 영웅들'이 출간됐다.

총 5개월에 걸친 기획회의를 통해 각권의 테마를 정하고, 각 권에 실을 인물을 가려 뽑았으며 가장 적절한 필자를 섭외하는 일까지 기획위원회에서 맡았다.

필자로는 강문식, 고지훈, 박은숙, 우경성, 최종석씨가 선정됐다. 책에서 다룬 5명의 인물은 특정한 역사적 배경에서 중요한 발자취를 남긴 영웅이자 '시대의 디자이너'로 통칭한다.

책에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꿈을 향해 질주한 조선 최고의 공산주의자 박헌영, 기울어가는 조선을 가장 급진적인 방식으로 인도한 근대적 혁명가 김옥균, 낡은 정치체제를 전복하고 새로운 국가를 수립한 혁명적 개혁자 정도전, 국가 개혁프로그램 '시무28조'로 고려왕조의 나아가갈 길을 밝힌 최승로 등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시대를 디자인'하려 했던 5명의 선각자를 만날 수 있다.

특히 송시열에 대한 기존의 평가를 뒤엎고 병자호란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겪으면서 위기와 정체에 빠진 조선사회를 새롭게 재정비하고 또 재건하려 했던 기획자로 해석한 점은 독특한 발상이다. <동북·1만3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난, 17세 소녀를 미친듯이 사랑했다

은교

박범신 지음



한동안 연애소설을 등지고 살았던 소설가 박범신(64)이 오랜만에 장편 연애소설 '은교'를 내놓았다.

소설은 올해 초 그가 네이버 블로그에 방 하나를 만들어 '살인 당나귀'라는 제목으로 연재했던 것을 엮은 것. 집필을 시작한 뒤 한 달 만에 그의 표현에 따르면 "밤에 미친 듯이 써 완성했다"는 작품이 더 마치고 나니 제목은 '은교'로 바뀌었다.

소설의 줄거리는 이렇다. 위대한 시인이라고 칭송받던 이적요가 죽은 지 일년이 되었다. Q면호사는 이적요의 유언대로 그가 남긴 노트를 공개하기로 한다. 그러나 막상 노트를 읽고 나자 공개를 망설인다. 노트에는 이적요가 열일곱 소녀인 한은교를 사랑했으며, 제자였던 베스트셀러 '심장'의 작가 서지우를 죽였다는 충격적인 고백이 담겨 있었던 것. 또한 '심장'을 비롯한 서지우의 작품은 전부 이적요가 썼다는 엄청난 사실까지.

작가는 전작 '출라체', '고산자'와 함께 이 세 작품을 '갈망의 3부작'이라고 스스로 수식어를 붙였다. "소설 속 주인공 이적요를 핑계 대고 자신의 욕망을 투영했다"는 작가는 이번 작품을 통해 존재론적 갈망을 그리며, 자신의 살아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듯하다.

종이책과 전자책(디지털교보문고)으로 동시에 출간됐다. <문학동네·1만2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인류 역사에 단골로 등장하는 곰

곰과 인간의 역사 ...

베르트 브루너 지음



우리나라의 창조신화인 단군신화를 보면, 호랑이와 곰이 등장한다. 이중 호랑이와 맺어진 웅녀는 원래 곰이었다. 비단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곰은 인류 역사에 등장하는 단골 소재였다.

독일 논픽션 작가 베르트 브루너는 '곰과 인간의 역사-세상에 가장 오래된 애증관계'에서 역사적 자료와 넘치는 상상력으로 인간과 곰의 오랜 관계를 깊이 있게 조명한다.

선사시대 이후엔 곰과 인간의 첫 만남에서부터 오늘날 곰이미지의 상품화에 이르기까지 곰과 인간이 만든 시간의 흔적을 곰의 유형 분류, 곰의 성격, 곰 사냥, 애완동물로서의 곰을 주제별로 정리했다. 저자는 곰과 인간 사이의 '애증의 인연'을 전하면서 모든 약은 사람들이 곰을 인간과 동일시하는 착각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한다.

이런 인간의 다중적인 태도는 인류 문명에서 고스란히 남았다.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그림에서 곰은 때로는 귀엽게, 때로는 미련하게, 때로는 사납게 그려졌다. 곰의 '성격'을 묘사한 글에서도 극도의 회화화와 난폭함에 대한 경계심이 함께했다.

저자는 인간과 곰이 기형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공생하려면 먼저 인간이 "곰은 사람과는 다르며 사람에게 별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곰과의 상당하고 건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생각의나무·1만5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효성공인중개사 T.062-376-4056 H.010-3126-1515 * 임야 (농장·묘지·적합) -나주·봉황 3,730평 (㎡당 10,600원) -매가 1억3천만원 (분할매각가능) * 독서실 임대 -동구 대인동 동부경찰서 인근 -고시화원내 독서실 170평 -보이 1억5천만 원 390만원 (관리비 포함) * 빌딩 (임대용·투자용) -토지 244평 건평 393평 (병원 사무실적합) -매가 19억 -보증금 1억9천만 원 830만원 보유하고 계신 부동산 중 재산리모델링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시오. 급매물 즉시 중개

대인동상업부동산 ☎(FAX)223-1772 ☎111-602-2532 (광주은행 신봉점, 대인동 상업서점1·2번)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 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 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 광주에서 오랜 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던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소부지구함 ■ 위치장소 : 제한없음 ■ 용량 : 제한없음 발전사업 허가를 득하고 신·재생 에너지센터에서 2010, 2011년 물량으로 선정확인 된 곳. 광주·전남권 중형마트 구함 ■ 위치 : 주변 3000세대 이상 밀집지역 ■ 매장면적 : 150-350평 ■ 임대 및 매수가능. ■ 영업 중인 매장도 인수가능 (주) 땅심 TEL : 010-3616-8698

GG경매컨설팅(주) 공인중개사: 장영희 ☎ 0621364-8700 H.P 010-4608-3700

지역	소재지	면적/평	건평	최저가	
광안구	신항동	해광삼거리	109/33	1억3천1백	
	남구	진월동	현대	128/38	1억2천8백
	북구	우산동	민지	158/48	1억3천1백
사구	북구	신원동	한수아파트	189/60	3억5천5백
	북구	우산동	금호아파트	158/48	2억4천2백
	북구	우산동	현대	224/68	1억9천3백
사구	북구	신원동	신원1	109/33	9천5백
	북구	우산동	금호아파트	215/82	3억1천
	북구	우산동	대우아파트	198/38	2억5천
북구	우산동	부진아파트	112/34	1억3천5백	
	우산동	트윈타워	105/59	3억5천	
	우산동	금호아파트	105/32	1억9천5백	
북구	우산동	해광삼거리	109/33	1억9천5백	
	우산동	우산동	198/70	2억2천	
	우산동	대우아파트	161/48	2억2천8백	
북구	우산동	신원동	109/33	9천5백	
	북구	우산동	금호아파트	215/82	3억1천
	북구	우산동	대우아파트	198/38	2억5천
북구	우산동	부진아파트	112/34	1억3천5백	
	우산동	트윈타워	105/59	3억5천	
	우산동	금호아파트	105/32	1억9천5백	
북구	우산동	해광삼거리	109/33	1억9천5백	
	우산동	우산동	198/70	2억2천	
	우산동	대우아파트	161/48	2억2천8백	
북구	우산동	신원동	109/33	9천5백	
	북구	우산동	금호아파트	215/82	3억1천
	북구	우산동	대우아파트	198/38	2억5천
북구	우산동	부진아파트	112/34	1억3천5백	
	우산동	트윈타워	105/59	3억5천	
	우산동	금호아파트	105/32	1억9천5백	
북구	우산동	해광삼거리	109/33	1억9천5백	
	우산동	우산동	198/70	2억2천	
	우산동	대우아파트	161/48	2억2천8백	
북구	우산동	신원동	109/33	9천5백	
	북구	우산동	금호아파트	215/82	3억1천
	북구	우산동	대우아파트	198/38	2억5천
북구	우산동	부진아파트	112/34	1억3천5백	
	우산동	트윈타워	105/59	3억5천	
	우산동	금호아파트	105/32	1억9천5백	
북구	우산동	해광삼거리	109/33	1억9천5백	
	우산동	우산동	198/70	2억2천	
	우산동	대우아파트	161/48	2억2천8백	
북구	우산동	신원동	109/33	9천5백	
	북구	우산동	금호아파트	215/82	3억1천
	북구	우산동	대우아파트	198/38	2억5천
북구	우산동	부진아파트	112/34	1억3천5백	
	우산동	트윈타워	105/59	3억5천	
	우산동	금호아파트	105/32	1억9천5백	
북구	우산동	해광삼거리	109/33	1억9천5백	
	우산동	우산동	198/70	2억2천	
	우산동	대우아파트	161/48	2억2천8백	
북구	우산동	신원동	109/33	9천5백	
	북구	우산동	금호아파트	215/82	3억1천
	북구	우산동	대우아파트	198/38	2억5천
북구	우산동	부진아파트	112/34	1억3천5백	
	우산동	트윈타워	105/59	3억5천	
	우산동	금호아파트	105/32	1억9천5백	
북구	우산동	해광삼거리	109/33	1억9천5백	
	우산동	우산동	198/70	2억2천	
	우산동	대우아파트	161/48	2억2천8백	
북구	우산동	신원동	109/33	9천5백	
	북구	우산동	금호아파트	215/82	3억1천
	북구	우산동	대우아파트	198/38	2억5천
북구	우산동	부진아파트	112/34	1억3천5백	
	우산동	트윈타워	105/59	3억5천	
	우산동	금호아파트	105/32	1억9천5백	
북구	우산동	해광삼거리	109/33	1억9천5백	
	우산동	우산동	198/70	2억2천	
	우산동	대우아파트	161/48	2억2천8백	
북구	우산동	신원동	109/33	9천5백	
	북구	우산동	금호아파트	215/82	3억1천
	북구	우산동	대우아파트	198/38	2억5천
북구	우산동	부진아파트	112/34	1억3천5백	
	우산동	트윈타워	105/59	3억5천	
	우산동	금호아파트	105/32	1억9천5백	
북구	우산동	해광삼거리	109/33	1억9천5백	
	우산동	우산동	198/70	2억2천	
	우산동	대우아파트	161/48	2억2천8백	
북구	우산동	신원동	109/33	9천5백	
	북구	우산동	금호아파트	215/82	3억1천
	북구	우산동	대우아파트	198/38	2억5천
북구	우산동	부진아파트	112/34	1억3천5백	
	우산동	트윈타워	105/59	3억5천	
	우산동	금호아파트	105/32	1억9천5백	
북구	우산동	해광삼거리	109/33	1억9천5백	
	우산동	우산동	198/70	2억2천	
	우산동	대우아파트	161/48	2억2천8백	
북구	우산동	신원동	109/33	9천5백	
	북구	우산동	금호아파트	215/82	3억1천
	북구	우산동	대우아파트	198/38	2억5천
북구	우산동	부진아파트	112/34	1억3천5백	
	우산동	트윈타워	105/59	3억5천	
	우산동	금호아파트	105/32	1억9천5백	
북구	우산동	해광삼거리	109/33	1억9천5백	
	우산동	우산동	198/70	2억2천	
	우산동	대우아파트	161/48	2억2천8백	
북구	우산동	신원동	109/33	9천5백	
	북구	우산동	금호아파트	215/82	3억1천
	북구	우산동	대우아파트	198/38	2억5천
북구	우산동	부진아파트	112/34	1억3천5백	
	우산동	트윈타워	105/59	3억5천	
	우산동	금호아파트	105/32	1억9천5백	
북구	우산동	해광삼거리	109/33	1억9천5백	
	우산동	우산동	198/70	2억2천	
	우산동	대우아파트	161/48	2억2천8백	
북구	우산동	신원동	109/33	9천5백	
	북구	우산동	금호아파트	215/82	3억1천
	북구	우산동	대우아파트	198/38	2억5천
북구	우산동	부진아파트	112/34	1억3천5백	
	우산동	트윈타워	105/59	3억5천	
	우산동	금호아파트	105/32	1억9천5백	
북구	우산동	해광삼거리	109/33	1억9천5백	
	우산동	우산동	198/70	2억2천	
	우산동	대우아파트	161/48	2억2천8백	
북구	우산동	신원동	109/33	9천5백	
	북구	우산동	금호아파트	215/82	3억1천
	북구	우산동	대우아파트	198/38	2억5천
북구	우산동	부진아파트	112/34	1억3천5백	
	우산동	트윈타워	105/59	3억5천	
	우산동	금호아파트	105/32	1억9천5백	
북구	우산동	해광삼거리	109/33	1억9천5백	
	우산동	우산동	198/70	2억2천	
	우산동	대우아파트	161/48	2억2천8백	
북구	우산동	신원동	109/33	9천5백	
	북구	우산동	금호아파트	215/82	3억1천